

6.15 공동선언 제 2 항의 역사적의의와 련방통일국가수립의 경로

주체 101년 9월 3일
총련조선대학교 최용해

△ 앞말 - 문제의식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생활력 : 혁신성과 탄력성
- 《낮은 단계의 련방제》 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절박성

1. 《낮은 단계의 련방제》 안의 내용과 《련합제》 안의 본질

1) 공화국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 안의 내용

△ 문헌적근거

-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1991년신년사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련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 43 권, 13 페이지)

- ※ 1989년 4월 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허담위원장과 문익환목사와의 공동성명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타방에게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도가 되며 그 구체적인 실현방도로서는 단계별로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 ※ 공화국 고위간부들의 발언 《느슨한 련방제 -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지역정부에 부여》

1991년 3월 손성필주쏘련대사의 로가쵸브 쏘련외무차관과의 회담에서의 발언

1991년 4월 8일 일본방문시 정준기대외문화위원장의 발언

1991년 5월 3일 국제의원련맹 총회 취재기자 인터뷰에 대한 윤기복비서의 발언

1991년 6월 2일 뉴욕타임스와 의 기자회견에서의 한시해조평통 부위원장의 발언

1992년 6월 23일 하와이국제학술회의에서의 리삼로대표의 발언

- 2000년 10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20돛기념 평양시보고대회》 보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서기국장)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91년에 하신 신년사에서 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련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할데 대한 방안도 천명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이 방안은 결국 낮은 형태의 련방제입니다.

... 우리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우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나가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 방안의 본질적내용

공화국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통일방안이 아니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천방도를 밝힌것이며 그것자체가 어디까지나 련방통일국가수립을 위한 잠정적이며 과도적인 단계라고 할수 있다.

우리 나라 통일위업은 하루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지만 반세기에 걸쳐 분단구조가 재생산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북남관계가 적대적인 대결상태로 존재하고 또한 남조선의 주권의 핵심부분을 외세가 구조적으로 관할하고있는 조건에서 당장 군대의 통합이나 외교권의 단일화가 어렵다는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객관적인 분단실정이다.

공화국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은 어디까지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창립을 전략적목표로 하되 우리 나라 분단의 실정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통일방안을 당장 받아들이지 않는 조건에서 보다 현실성과 탄력성을 담아 제시된 련방제통일의 초기단계론이며 실천방도라고 할수 있다.

△ 방안의 정당성

첫째로, 통일의 초기단계에서의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권한문제를 새롭게 밝히고 통일이 진척될수록 그 권한을 중앙정부로 옮겨나가는 합법칙적인 로정을 밝힌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권한문제란 주로 외교권, 국방권을 의미한다.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은 련방제로 나가는 잠정적단계를 설정하고 그 낮은 단계에서는 외교권과 국방권을 지역정부가 관할하도록 하되 이를 우리 나라 분단의 특수한 실정과 단일민족으로서의 통일의 당위성을 전제로 련방제의 틀속에서 해석하는데 그 핵심적의의가 있다.

둘째로, 통일의 진입과정에서 통일의 추진체로서의 상설적인 민족통일기구의 형성 및 가동의 중요성과 그 지위와 역할을 명철히 밝힌데 있다.

낮은 단계의 련방제에는 북과 남의 두개의 정부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정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련합제의 사례처럼 단순과반수, 만장일치 등의 의사결정방식들이 채택될수 없으며 오직 두 정부의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정책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질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과 남의 상설적인 통일기구를 내오는것이 통일의 진입과정에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되며 통일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가는것이 관건적인 문제로 제기되게 되는 것이다.

△ 《낮은 단계의 련방제》의 실현과제

첫째로, 북남관계가 제도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는데 있다.

둘째로, 통일의 추진체로서의 민족통일기구를 가동하게 하기 위하여 10.4 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데 있다.

셋째로, 정부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질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활성화하는데 있다.

2) 남조선의 《연합제》안의 본질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반동적본질

남조선의 《연합제》안은 로태우정권이 내놓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그 뿌리를 두고있으며 김영삼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거쳐 오늘까지 남조선정부의 공식통일방안으로 자리잡고있다.

- 방안의 내용

- 제 1 단계 : 화해협력단계 → 신뢰구축과 화해공존을 추구, 상호불신을 해소
- 제 2 단계 : 연합단계 → 공존제도화의 중간과정, 과도적통일체제인 연합의 구성
- 제 3 단계 : 통일국가완성단계 → 1 민족 1 국가로 단일통일국가 완성

- 방안의 반동적본질

첫째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본질적으로 《1 민족 2 국가론》으로서 어디까지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흡수통일방안이라는데 있다.

《2 국가론》이란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공존하자는 뜻으로서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의 지향과념원에 배리되는 분단영구론이라고 할수 있다.

방안은 기만적으로 통일의 단계를 설정해놓고있으나 최종통일단계로서의 자본주의체제에 의한 통일에로의 급진적인 접근방식을 그 속성으로 하고있다.

둘째로, 독일의 통일방식을 우리 나라에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기능주의》통일론이라는데 그 본질이 있다.

방안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서 출발한것이 아니라 랭전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좌절을 매개로 독일식흡수통일을 우리 나라에서 실현시켜보려는 망상에서 출발하고있다.

독일과 우리 나라의 실정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공화국은 구동독일처럼 붕괴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정치,경제,군사,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사회주의강국이다.

반면에 남조선은 일정한 경제의 량적 《성장》을 이룩했다고하여 한 나라를 흡수할만한 경제력을 가지고있지 못합뿐아니라 오히려 정치,경제,군사,문화의 모든 분야의 자주권이 외세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유린된 채 상대적자률성만을 가지고 국가운영이 진행되는 나라이다.

따라서 정치적자주성이 미약했던 동독일이 구쏘련사회주의의 좌절을 매개로 서독일에 의하여 흡수통일된 독일의 통일공식을 조선반도에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려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다고 할수 있다.

※ 기능주의 ~ 하나의 국제정치학적범주로서 국가관계에서 비정치군사적인 차원인 경제,문화,사회교류를 선행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그 실적이 국가간의 정치군사적관계의 호전을 유발한다는 의미를 가진 개념

△ 김대중의 《3 단계통일론》의 내용과 제한성

김대중의 《3 단계통일론》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구분되는 내용과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6.15 공동선언의 제 2 항에 명기되어있는 《연합제안》은 남조선정부의 공식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 단계에 준하는 연합제가 아니라 김대중의 《3 단계론》의 1 단계에 준하는 연합제단계를 의미하고있다.

- 방안의 내용

- 제 1 단계 : 공화국연합단계
- 제 2 단계 : 연방제단계
- 제 3 단계 : 완전통일단계

- 제한성

김대중의 《3 단계통일론》은 연합단계를 거쳐 연방단계에 이르는 절차가 있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화국에 대한 적대성이 약하고 현실적내용도 담고있으나 본질적으로 공국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절대적당위로 보고 공화국을 시장경제체제에 편입하려는 일종의 흡수통일방안이라는 근본적인 제한성을 안고있다.

2. 6.15 공동선언 제 2 항의 역사적의의

6.15 공동선언 제 2 항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

△ 제 2 항의 합의내용

6.15 공동선언의 제 2 항은 한마디로 가장 빨리 연방제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통일의 진입방식을 제시한 조항이다.

6.15 공동선언이 가지는 정당성과 생활력은 체제공존형의 통일정부, 즉 연방국가건설을 최종목표로 하고 북남 두정부의 외교권, 국방권을 그대로 인정한 기초우에서 민족의 자주와 단합의 실현정도에 맞게 북남관계를 발전시켜 단계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현실적방도를 밝힌데 있다고 할수 있다.

첫째로, 두 방안은 다 통일의 형태나 완결방식이 아니라 통일의 진입방식이라는데 있다. 즉 통일의 미래상이나 결과가 아니라 통일에 어떤 형식으로 들어서는가하는 접근방법에서 공통성을 찾았다고 할수 있다.

둘째로, 두 방안은 다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통일방안으로서 우리 나라 분단구조의 특수성으로부터 당장의 통일이 어려운 조건에서 체제와 제도를 그냥 유지한채 평화공존을 당면목적으로 하는 과도적단계를 설정하고 그 결합방식도 매우 느슨하게 상정시켰다는데 있다.

통일의 첫단계로서의 낮은 단계의 연방국가는 그 표상으로 볼때 구라과공동체(EU)보다 보다 느슨한 형태의 결합이 될것이며 구라과공동체처럼 통화의 단일화나 전면적자유래왕은 다음 단계의 과제로 남겨놓고 우선은 우리 나라 분단의 구조적상징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행시켜 우리 나라 통일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는 법적,제도적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1 민족 1 국가의 틀속에서 느슨한 결합을 추구하는 단계라고 할수 있다.

△ 제 2 항의 역사적의의

첫째로, 북과 남의 자주적통일의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내외에 크게 선포한데 있다.

둘째로, 제도통일의 문제를 다음세대의 문제로 상정시키고 당면하여 통일을 과도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데 대한 합의를 본데 있다.

셋째로, 점진적인 통일진입방식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민간이 통일위업에 참여할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어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에 따라 정부차원의 통일추진만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통일전선과 교류협력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통일위업의 불가역성을 더욱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된데 있다.

3. 연방통일국가수립의 경로 (시론)

우리 민족사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 3 대헌장이 있고 그 사상과 령도를 완벽히 계승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며 통일위업의 설계도로서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있어 바야흐로 우리 나라 통일의 첫단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진입의 문어귀에 서있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지난 4 년남짓한기간 반통일의 원흉인 리명박에 의해 북남관계가 악화되고 통일위업에 심각한 계동이 걸렸으나 오히려 리명박의 반통일적인 행태는 역설적으로 남조선인민들에게 6.15 공동선언의 정당성과 통일의 절박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 원활한 통일경로를 위한 전제조건

첫째로, 미국의 대조선정책과 조미관계의 개선여부에 있다.

6.15 공동선언은 민족통일의 대강으로서의 통일의 원칙과 방도를 마련했다는 의의와 함께 동아시아의 국제력학구도를 발본적으로 개편하고 이 지역에서 대결적인 랭전구도를 종식시키고 동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한 새로운 공존질서를 여는 분수령을 마련했다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조미관계개선은 시대발전의 합법적추이에도 맞을뿐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철저히 부합된다.

미국이 시대의 추세에 맞게 랭전시대의 사고방식과 기득권을 버림으로써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고 조미간의 국가관계가 정상화되어야 우리 나라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게 된다고 할수 있다.

둘째로,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종속적인 관계를 극복하는 문제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지배-종속관계라고 할수 있다.

미국은 남조선을 정치,경제,군사,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으로 종속시키고있으며 그 지배방식은 신식민주의적지배방식이라고 할수 있다.

남조선의 국가로선은 미국과 남조선간의 조약과 협정에 의하여 규정되며 국가정책은 미국과 남조선간의 쌍무적협의기구에 의해 규제될뿐아니라 그 정책의 집행과정은 미국의 현지지배기구들에 의해 철저히 감시감독된다.

따라서 남조선의 자주권이 회복되고 적어도 정책수립과 집행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만 북과 남의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수행하는 통일위업을 우리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에 따라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종속적인 관계를 극복하는 문제는 복잡성과 장기성을 띠는 문제이기는 하나 이 문제의 극복없이 민족통일의 궁극과업이자 목적지인 전민족의 자주성실현을 달성할수 없으며 외세의 리해관계가 작용하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 통일과정이 정상궤도에 따라 진척될수 없게 될것이다.

셋째로, 남조선에서의 통일지향정권의 수립문제이다.

지난 4 년남짓한 기간 리명박정권의 시대착오적인 반복대결정책에 의하여 북남관계는 악화의 일로를 걸었으며 6.15 이후 착실히 전진해온 우리 나라 통일위업은 심각한 담보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남조선의 차기대통령선거는 우리 나라의 통일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지 아니할수 없다.

남조선의 립법부나 행정부가 미국에 종속될수 밖에 없는 구조적취약성을 가지고있고 야당세력들도 일련의 제한성을 안고있기는하나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고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는것은 6.15를 복원하고 우리 나라 통일위업을 질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관건적인 문제가 될것이다.

특히 북과 남이 아직 실질적인 통일과정에 들어서지 못함으로 하여 량정부를 규제할 합의와 법적,제도적조치, 그리고 통일추진기구가 가동하지 않는 조건에서 남조선에서 어느 세력이 집권하는가하는 문제는 당면 통일위업추진에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게 되는것이다.

남조선의 현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집권전략과 공약들을 보게 되면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6.15 공동선언을 복원하고 차기정권의 집권기한내에 《련합제》(낮은 단계의 련방제)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와 조치들을 취해나갈데 대하여 밝히고있다.

남조선의 차기대통령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실현되는경우 우리 나라 통일위업은 질적으로 새로운 제 2의 6.15 시대를 맞이하게 될것이며 낮은 단계의 련방제통일시대는 가까운 앞날에 우리 앞에 선히 펼쳐지게 될것이다.

△ 련방통일국가수립의 경로 (5 단계론)

- 제 1 단계

제 1 단계는 분단의 평화적관리기로서 이는 6.15 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북과 남이 통일의 지향성을 확고히 하며 통일과정의 진입을 위한 사회적준비를 다그쳐나가는 단계이다.

이는 6.15 공동선언이후 현재진행형의 단계로서 리명박정권에 의해 일시적으로 차단된 북남관계를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차원에서 복원하여 북과 남이 서로 통일과정에 들어서기 위한 각기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개선하고 북남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신뢰관계를 질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올려세우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10.4 선언에서 밝혀진 북남간의 협의기구를 속히 가동시켜 그것을 상설적인 통일추진기구로서의 민족통일기구로 발전시켜나가게 된다.

또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상징적인 《4 자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잠정협정이 체결되어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틀거리가 마련되는 단계이다.

- 제 2 단계

제 2 단계는 낮은 단계의 련방제에로의 진입기로서 사실상의 통일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낮은 단계의 련방제에로의 진입기는 통속적으로 비유하면 낮고 또 낮은 단계의 련방제단계로서 구라과편합보다 더욱 느슨한 형태로 북남간의 결합이 추진되고 북남간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북남간의 통일추진기구가 상설화, 정례화되고 북과 남의 량정부의 정책과 실천을 조절해나가게 된다.

또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 조선반도에서 평화체제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고히 고착되어 우리 나라를 둘러싼 대외적환경이 발본적으로 개선되는 차원에 이르게 된다.

특히 이 단계에서 조미간의 정상적인 국가관계수립에 따라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의 개선문제가 상정되고 그 전환이 현실화되게 될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또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외교무대에서 단일국가의 면모를 과시하게 되고 올림픽이라는 상징적인 국제무대에 단일국가로서의 참가가 가능하게 될것이며 통합의 성숙정도에 따라 단일국호에 의한 낮은단계의 련방제국가의 대외적선포도 전망할수 있다.

- 제 3 단계

제 3 단계는 낮은 단계의 련방제의 성숙기라고 할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민족통일기구가 중앙정부로서의 맹아적인 면모를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북과 남의 주권의 일부를 점차적으로 이양해나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성격변경이 완료되고 남조선 《국군》

의 통수권, 작전권이 회복되며 그에 기초하여 북, 남 각기 10~15 만정도의 병력으로 군축이 실현 될것이 전망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또한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이 실현되고 국내적으로 래왕의 자유와 경제공동 체실현의 토대가 닦아지게 될것이다.

- 제 4 단계

제 4 단계는 높은 단계의 련방제에로의 완충기라고 할수 있다.

이 단계에서 외교권, 국방권을 비롯한 주권의 핵심부분이 중앙정부에로 이양되기 시작하여 점차 련방제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독자적으로 행사해온 외교가 단일화되어나가게 되며 민족련합군의 형성을 추진하 게 된다.

또한 래왕의 자유뿐아니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통화의 단일화도 실현되는 단계이다.

- 제 5 단계

마지막단계는 높은 단계의 련방제, 즉 련방통일국가의 완성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외교권, 국방권을 비롯한 지역정부의 주권이 중앙정부에 이양되어 련방통일국가의 면모를 완성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중앙정부로서의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회의가 구성되어 각기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지역정부를 지도하게 되며 련방국가의 전반사업을 관할하게 될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민족자주의 정통성을 계승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규제관리하는 질서속에서 련 방제통일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주한미군의 완전철수가 이루어질것이다.

또한 공고한 련방통일국가는 그 어느 세력이나 동맹, 군사빨력에도 가담하지 않는 《영세중립국》 이 될것이다.

△ 맺는 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신 공화국의 통일정책과 련 방제통일방안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가 있는 한 우리 나라 통일위업은 승리의 길 따라 곧바로 전진해나갈것이다.